

“욕심 버리란 가르침 새길터”

러시아 교육위원회 회원 43명 템플스테이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온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감사에서 탁본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우 기자

“이렇게 먹물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대고 팔고루 문지른 다음 종이를 떼면...”

공주 감사 김경범 사무장이 탁본 시범을 보이자 한 외국인이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해본 탁본을 펴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펴 보인다. 다른 한쪽에서는 15명가량의 외

그럼.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스님의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힘이 인상적이었으며, 참선과 발우공양은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스님과 참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스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선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질(問) 표시가 ‘나치’ 표시와 비슷한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위원 43명이 감사에서 7월5~6

일 이틀간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을 한 것은 한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본 뒤 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포함한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기관. 이들은 아침(저녁)예불, 참선, 발우공양, 명상, 월인석보 탁본, 불교 무술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불교 전통과 문화를 체험했다.

감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사중의 일부 스님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했다. 다른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가자들 역시 교육자들이어서인지 꼼꼼하면서도 세심하게 한국 불교를 관찰했다.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회장 조르소바 올가(52·Chorssova Olga)는 “평소 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이번 체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 불교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현재 대진대 한국어과(4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나(20·Nina)는 “통역을 하면서 한국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불필요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 체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감사 주지장곡 스님과 간단한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장곡 스님은 “불교는 앉아서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축제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장곡 스님의 말을 리나가 통역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합장 인사로 답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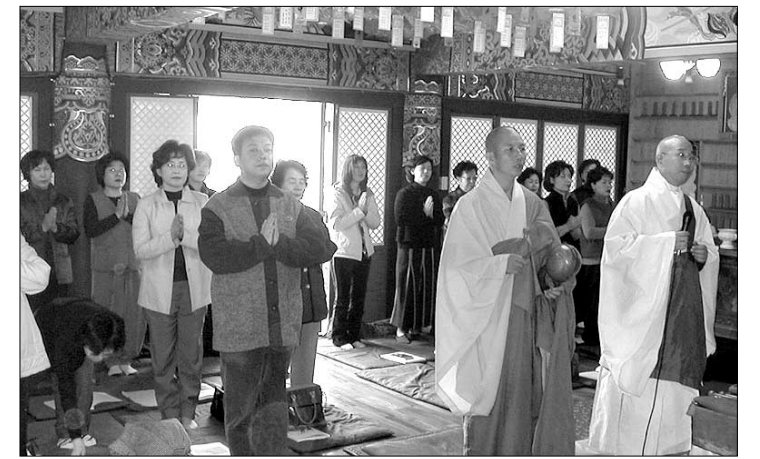
기사=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서울 달마사

문화도량 불사 순조



신도들의 기본교육을 위해 개설된 달마불교대학. 수련 시작전 삼귀의를 하고 있다.

절 아래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청설모가 뛰어노는 서울 동작구 달마사(주지 미명).

1931년 창건된 달마사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지역 주민과 흑석시장 상인들이 즐겨 찾는 자그마한 암자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미명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달마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명 스님은 취임 직후 도량을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에 귀속됐던 180여 평의 땅을 사찰 명의로 되찾았고 사찰

당 넓히고 편의시설 갖춰 주민 쉼터로 는 힘들고 수십 년이나 지질 때면 묵은 쓰레기 더미를 치웠

다. 손수 지게를 지고 쓰레기를 치운 땅에 15x 트럭 20대 분의 흙을 다져 동산을 만들었다. 동산에는 진달래와 철쭉, 소나무도 직접 심고 의자도 두었다. ‘누구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스님은 거리를 나섰다. 사찰 홍보 전단지 대신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하나하나 꽂았고, 시장 입구에는 홍보 현수막을 달았다. 지하철 영상광고까지 이용한 ‘달마사 알리기’는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전통차 시음회와 사진전, 국악공연, 노래자랑 등의 문

화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도들이 늘기 시작하자 미명 스님은 불교대학을 열어 불자 기본교육에 앞장섰다. 또한 어린이 법회와 여름불교교를 마련해 아이들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었다. 올해 3월에는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문예대학’을 열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설가 김성동 씨가 학장을, 신경림 시인과 수필가 맹관자 씨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 문예대학은 5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 가을에는 문예대학 중급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달마사 곳곳에 쌓여 는 힘들고 지질 때면 묵은 쓰레기 더미를 치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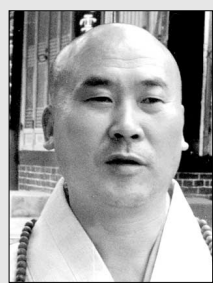
다. 손수 지게를 지고 쓰레기를 치운 땅에 15x 트럭 20대 분의 흙을 다져 동산을 만들었다. 동산에는 진달래와 철쭉, 소나무도 직접 심고 의자도 두었다. ‘누구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스님은 거리를 나섰다. 사찰 홍보 전단지 대신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하나하나 꽂았고, 시장 입구에는 홍보 현수막을 달았다. 지하철 영상광고까지 이용한 ‘달마사 알리기’는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전통차 시음회와 사진전, 국악공연, 노래자랑 등의 문

화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도들이 늘기 시작하자 미명 스님은 불교대학을 열어 불자 기본교육에 앞장섰다. 또한 어린이 법회와 여름불교교를 마련해 아이들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었다. 올해 3월에는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문예대학’을 열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설가 김성동 씨가 학장을, 신경림 시인과 수필가 맹관자 씨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 문예대학은 5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 가을에는 문예대학 중급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달마사 곳곳에 쌓여 는 힘들고 지질 때면 묵은 쓰레기 더미를 치웠

전통방식으로 대형가사 제작 담양 용화사, 18일 점안법회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전통가사가 재현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dyonghwasa.or.kr)는 7월 18일 오전 9시 30분 가사불사 점안식 및 목담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번에 점안하는 대형가사는 전통 홍(紅)가사로 용화사에 조성중인 미륵불이 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용화사는 20여명의

국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자유분방한 자세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7월 6일 오전 계룡산 감사.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위원 43명이 5일부터 한국 사찰체험을 하고 있다. 탁본 체험과 한국 불교에 대한 설명은 이번 일정의 마지막 프로

가사불사준비위원장 수진 스님은 “가사는 부처님이 수행자의 상징으로 검소하게 입으신 옷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의로 수하게 됐다”며 “사라져 가는 가사불사의 전통을 잇기 위해 자수와 바느질을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는 18일 가사불사 점안에 이어 전통 울매를 이어온 목담 스님 유물전시관을 개관한다. (061)381-2683 이준엽 기자

홍성 기원정사포교원 창립4주년 기념법회



서산 송덕암(주지 동우)의 포교단인 홍성 기원정사포교원이 창립 4주년을 맞아 7월 5일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기념법회에는 대교총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원장 학현 스님, 교무부장 법현 스님, 재무부장 승조 스님, 규찰부장 경담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지역사찰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축사에서 “기원정 사포교원은 홍성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법 흥포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며 “앞으로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우 스님은 “도심 속의 대종교 화도량으로서 군포교와 대학생포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명실상부한 서해안 중심 포교도량으로 자리잡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광주 서부서 경승단 60명 활동 법회 주관·재조사 교화 앞장

광주 서부경찰서 경승단(실장 광민 스님)이 7월 8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 활동을 들어갔다.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강진성 서장, 김창배 서부경찰서장, 서부서 불자회원, 경찰서 간부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성 서장은 광민(구각사 주지), 혜향(함림사 주지), 무이(덕림사 주지), 월인(법륜사 주지)스님에게 경승단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광민 스님을 실장으로 하는 서부경찰서경승단은 서부서불자회 법회를 주관하며 유지자 재조사 교화에 앞장 선다. 이준엽 기자

청양불자련 18일 결성

청양군청에 불자연합회가 결성된다. 청양군불자연합회(위원장 최순규)는 7월 18일 오후 2시 청양읍 불교청년회관에서 발기총회를 열어 연합회 임원 선출과 창립법회 일정 등을 확정한다.

청양군사암연합회(회장 법운·봉은사 주지)의 지원으로 결성되는 청양군불자연합회는 청양지역 30여 사찰의 신도회를 중심으로 정법 흥포와 지역포교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순규 발기위원장은 “7월 1일 청양군사암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불자연합회를 결성 하자는 뜻을 모았다”며 “사암연합회와 함께 포교에 앞장서고 신도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지역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문수 도량 오대산 첫지를 매수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발일 : 1차 9월11일-14일(3박 4일) 2차 9월14일-17일(3박4일) 3차 9월17일-20일(3박4일) 4차 9월20일-23일(3박4일)
- ※선착순 각 35명 한정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 천 대 동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 후 전용차량으로 태원 출발 대동 도착, 석식 및 호텔투숙	제 3일	오대산	문수보살성지 오대산의 현몽사, 보살정,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최대 문수보살을 모신 수상사(법회), 대라경(계이불가), 용천사동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제 2일	대 동 오대산	중국 불교 3대 석굴중 하나로 5만여 불상들을 세간 운강석굴 신라 황룡사 9층탑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거대한 용현탑 등 순례후 오대산 도착 석식 및 호텔 투숙	제 4일	오대산 태 원 인 천	오대산 출발 태원 도착 후 공항으로 이동, 전세기 편으로 태원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8월 10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무투치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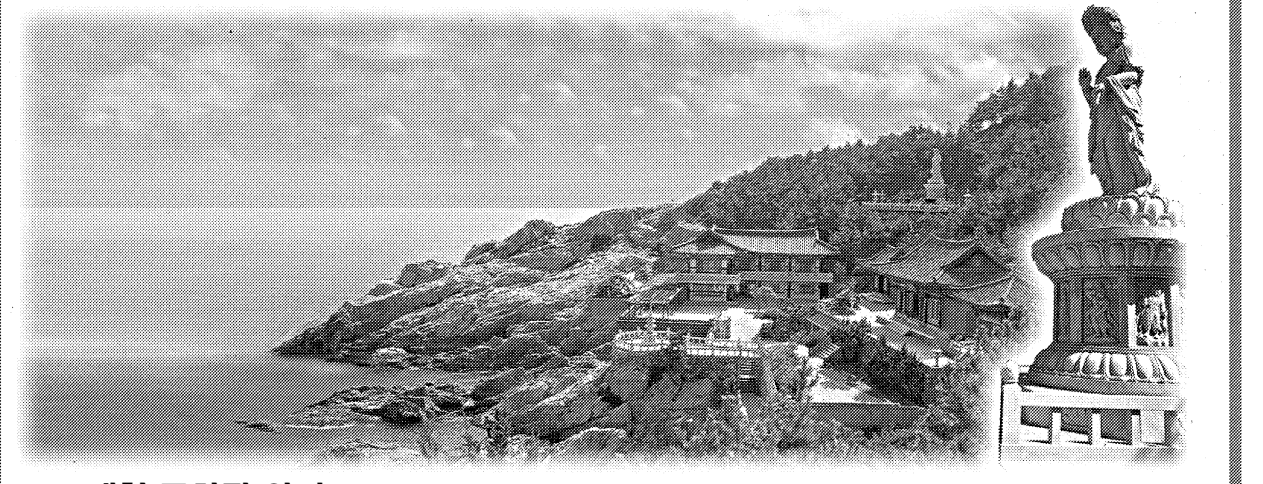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택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추수 마을)-키슈카르-쿠차(천불동)-우무투치

■ 티벳, 네팔 일주 11일 (출발일: 9월 3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조망)-정무-카트만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